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4(월) 오전11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4. (월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 세계무역기구과
담당과장	한철희 과장(044-203-5690) 정경록 과장(044-203-5920)	담 당 자	김기열 사무관(044-203-5694) 민현지 사무관(044-203-5922)

산업통상자원부,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및 상해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
- 세계최대규모 수입박람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 격려 -

□ **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** 11.5일(화)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**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(11.5~10일) 및 비공식 WTO장관회의**에 **정부 대표로 참석**한다.

□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수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**세계최대 규모 행사**로서,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전세계 약 3,7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.

* 150여개국, 3,700여개 기업 참가 예정(세계 500대 기업 중 250여개 참여)
* 우리나라는 약 270개 기업 참가 예정(한국 기업관 200개 업체, 개별 참가기업 약 70개)

○ 김승호 실장은 국제수입박람회 참석에 앞서 11.4일(월) 상해에서 박람회 참가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지난해 **제1회 수입박람회 참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성과를 확인**하고 **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**하였다.

【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 참가기업 간담회 개요 】

○ 일시/장소 : 2019.11.4(월) 19:30-21:00 / 중국 상해 뉴월드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
○ 주요 참석자
- (참가기업) 삼성전자, CJ, 한빛코리아, NUC 전자, 메타바이오메드, 코지, 기베스트, 세인디앤아이, 네오메드, 창평, 제이푸드서비스, 뷰아이디어 등
- (정부 및 유관기관) 산업부, 무역협회, 코엑스

○ 동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수입박람회 계기로 **중국 바이어들과 체결된 계약들을 소개**하였고, 중국이 산업고도화와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**수입구조가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재편**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.

○ 김승호 실장은 "정부는 **우리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**을 위한 **대책을 마련***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, 특히 중국 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생활용품, 뷰티·헬스, 식품 등 **고급 소비재로 수출품목을 다각화**하고 **온라인시장 진출 확대, 지방정부 협력 등을 추진 중"**이라고 강조하였다.

* 수출활력 제고 대책('19.3월),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('19.9월),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('19.10월)

○ 김 실장은 11.5일(화) 개최되는 **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**이며, 11.6일(수)에는 한국 기업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여 **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**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김 실장은 같은 날 개최되는 '**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**'에도 참석한다.

○ 중국 중산 상무부장 주재로 진행되는 同 회의에서는 EU, 일본, 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와 WTO 사무총장이 **"WTO 개혁"과 "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"를 논의**한다.

○ 同 회의 계기 개최되는 '**WTO 투자원활화 각료급 회의**'에서는 다수의 WTO 회원국이 모여 WTO에서의 '**투자원활화' 논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각료급 공동성명을 발표**할 예정이다.

○ 투자원활화 논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각국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, 투자 신청·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제 투자흐름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자는 논의로서,

○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시에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범이 정립되도록 同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김기열 사무관(☎044-203-5694) 또는 세계무역기구과 민현지 사무관(☎044-203-5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